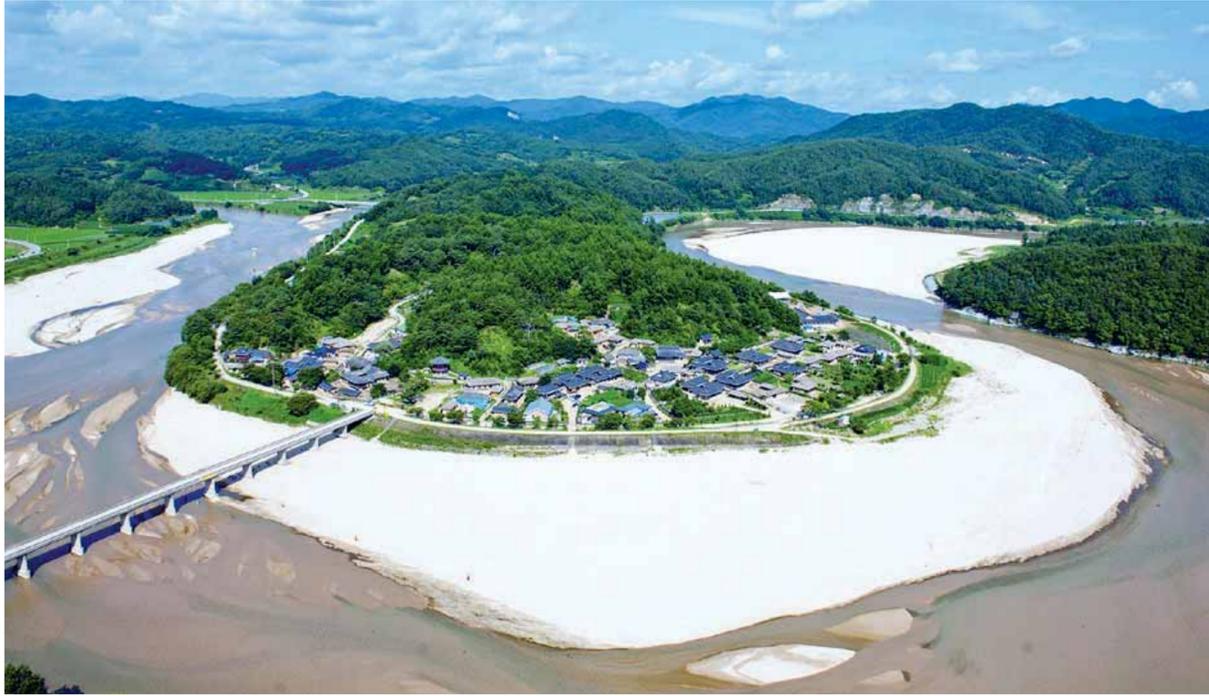


◆머느리권씨 열전 2

의(義)와 예(禮)의 선비 예안 김씨 김낙수의 처

닭실 권씨 이야기 영주 문수면 무섬마을



아주 오래되지도 않은 이야기이다. 휴머니즘이란 사람이 사람인 까닭을 뜻한다. 부끄러움을 알고 의리를 지키고 예로써 충만한 것이 곧 선비의 길이며 참 사람의 태도이다. 사람만이 가진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다. '부끄러움'이란 사람이 참된 삶을 위해 만들어낸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이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모든 도덕의 으뜸이며 중심이다. 음양오행의 중심이 흙(土)이며 황(黃)이며 근본이고 신(信)으로 표명한다.

서울 청량리 역에서 새로 난 고속 기차를 타고 한 시간 남짓 가면 영주라는 도시가 있다. 그리고 거기 문수면(文殊面)이라는 곳에 수도리(水島里)란 이름다운 마을이 있다. 물수가 섬도자이니 '물섬'이고 이것을 '무섬'이라 부르게 된다.

여기는 250년 전 영조임금 때 배남 박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 그리고 예안 김씨가 모여 살게 되었어. 예안은 인근 안동의 마을로 5000원 짜리 돈에 나오는 이퇴계 선생의 도산서원이 있는 곳이고 그 후예들이 많이 살았지만 안동댐이 생기면서 본래 자리라는 물에 잠기고 말았지요. 옛날부터 훌륭한 학자와 인물이 많은 곳이다.

요즘 떠오르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경주 김씨이고 예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이 예안(禮安)을 바탕으로 하여 처음 자리잡은 할아버지를 시조로 하여 예안 김씨라고 하지요. 예안의 옛 지명이 선성(宣城)이어서 선성 김씨라고 통칭한다.

예안 김씨는 지금 불과 2만명도 안되는 인구이지만 과거 많은 인물들을 낳았다. 근래에는 150년전 고종 때 이 무섬마을 출신 김낙풍(金樂豊, 1825-1900)은 자는 성발(聖撥), 호는 해우당(海慰堂) 또는 대은(大隱)이며 남인계열의 정치인으로서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였고 과거급제후 임금부 도사까지 올랐으나 정치에는 마음이 없었다.



다만 고종 임금 아버지인 대원군과 친하여서 대원군이 이 무섬마을에 놀러와서 김낙풍의 호인 해우당에서 본 뜬 집의 간판을 써주기도 했다.

여기서 이 김낙풍의 형 김낙수(金樂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무섬마을의 예안김씨(禮安金氏) 임향조인 치류정(峙流亭) 김대(金臺, 1732-1809)의 셋째 집 증손자로,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업에 남다른 재질을 보이면서 마을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다. 그런데 그가 15세 때 혼담이 오가게 된다.

인근 봉화군 닭실 마을에 권씨 처녀가 살았다. 닭실 마을은 지금도 옛집이 많은 선비의 마을인데 김낙수 만큼 지체 높은 집안이었다. 닭실 마을은 500여년 전 중종임금 때 권벌(權穰, 1478-1548년)선생이 기묘사화로 벼슬을 잃고 시골로 내려 간 곳이 바로 이 곳이다. 권벌선생은 그 전에 삼척부사로 가는 도중 이곳을 지나며 풍수가 너무 좋아 찻 해는 자리에 병든 아버지도 도울 겸해서 귀촌 할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지금 여기에는 아주 오래된 집과 서적들이 있는 이름 있는 고장이다.

몇 년 전 그 후손인 권현조(權憲祖, 1930-2010, 검교공파 사복재계 시조 후 34세)는 부모의 묘소를

평생 섬기고 마지막 선비로서 삶을 마감했다.

백오십년 전 이 닭실 마을 처녀와 무섬마을 김낙수 총각의 혼례가 있게 되었다. 김낙수는 15세였고 신부는 아마 두어살 많았다고 봐야 하지만 권씨 처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된다.

그런데 혼약을 하고 얼마 뒤 신랑집에서 그 권씨 처녀가 몸을 병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요즘도 고치기 어려운 '전간(癩癩)'이란 병으로 뇌의 어떤 곳이 문제가 생겨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다. 당시에는 후손에게도 내려준다고 믿은 아주 나쁜 병이었다. 흔히 말하는 '지랄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안 김낙수 집안에서 혼약을 없었던 걸로 하려고 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김낙수 청년은 아니 소년이라고 봐야는데 이렇게 말했다. "혼사의 결정은 가문 간의 약속인데 어떻게 깰 수 있으며, 파혼당한 이의 가슴에 비수를 찌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혼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옛날 결혼식은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에 가서 신부집 마당에서 혼례를 하고 첫날밤을 보낸 후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닭실마을 신부집에서 첫날밤을 치루는데 긴장한 신부는 결국 발작을 일으키고 말았다. 옛날 전통 혼례에서는 첫날밤을 지내는 신랑 신부의 방에 문구멍을 뚫고 마을 아낙네들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신부가 온몸을 뒤틀고 눈을 까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떠는 일이 생기니 모두들 놀랐다. 그런데 신랑 김낙수는 태연히 신부를 무릎에 놓고 자신의 웃고름으로 신부를 입을 닦아주고 손발을 주무르며 다독여 주었다고 한다. 이러자 이를 문구멍으로 보던 아낙네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감동하여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도이다.



다음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무섬'으로 돌아온다. 금모래 은모래의 전설이 있는 아름다운 내성천(乃城川)을 가로지르는 쉼다리를 건너서 온다.

아마 화사한 봄날일 것이라 믿어본다. 그 때 이 긴 다리를 지나는 신행 행렬을 상상하면 저절로 행복해 질 것 같다. 지금도 그 다리는 아주 유명하여 찾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무섬마을 김대(金臺) 가문의 머느리가 되었다. 그리고 신랑은 부인의 병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서 온갖 명의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 신랑집은 돈도 많고 마음씨가 착해서 아낌없이 썼다고 한다.

행복에 겨운 신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건만 신부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시집은 지 일년 반 만에 죽고 말았다.

그 뒤로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 무섬마을에 큰 불이 났다. 1877년 이라고 기록도 있으니 사실이다. 온 마을이 전부 잿더미가 될 정도로 엄청난 불이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우물, 담장, 대문, 감실, 농토가 없다고 한다. 모든 집이 다 불났는데 오직 김낙수네

집만 멀쩡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 어찌 김낙수의 집만 타지 않았나 하는 것이 매우 신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니, 불이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김낙수 곧 신랑집 지붕위에 연두저고리와 분홍치마의 새색시 처림의 젊은 아낙네가 치맛자락을 펼쳐서 불길을 막고 있더라는 것이다. 닭실 마을에서 시집온 권씨는 시댁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귀신이 되어 서도 나타나 불길을 막은 것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그 집 머느리였던 권씨라 생각하고 지금도 '은혜 깊은 권씨 할머니'라고 하면서 감동적인 전설로 생각하고 있다.

'치맛자락을 펼쳐 화마(火魔)를 막은 권씨 할머니의 보은'의 요점은 남편의 인간적 애정과 죽어서도 은혜를 갚은 아내이다. 이것이 꼭 부부가 아니라도 인간이 가져야하는 근본적인 심성이다.

권씨 규수가 몸을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인간적 도리와 인정으로 혼인을 하고 아내를 간호했던 남편, 그리고 불길을 막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은 아내, 두 사람과 집안의 훈훈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무섬마을에 생생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메마른 세상에 우리의 조상이 남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삭막하고 어려운 코로나로 찌들은 시절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그 무섬으로 가는 길고도 긴 그 쉼다리를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보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행복은 먼데 있지 않은 것 같지 않다. 이런 것은 예안 김씨와 안동 권씨 간에 서로 후손에 물려줄 유산이니 두 종친 회가 만나서 기념해 본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었다. 글 권오철 기자



무섬마을 동영상

상주시, 권정환씨 형제 향교 춘계석전대제서 제3회 효열(孝烈) 표창 수상



제3회 상주시·상주향교 효열표창 기념 가족사진 촬영

설농(雪濃) 권정환(權正煥, 검교공파 33세) 죽던 4형제가 2021년 3월 20일 상주향교(전교 금중현)명륜당에서 거행된 춘계석전대제에서 제3회 상주시·상주향교 공동명의 효열 표창을 수상했다.

금중현 전교는 "권정환 씨는 4형제의 장남으로서, 매사 온화겸손(溫和謙遜)한 처신으로서 송조돈목(崇祖敦睦)과 형우제공(兄友弟恭)의 본보기로 주위에서 귀감이 되어 표창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효열(孝烈) 표창은 상주향교의 회중으로 향토기업인 (주) 동천수(대표이사 박철호)의 후원을 받아 상주시장과 상주향교 전교 공동 연명으로 표창 작자를 제작하여 시상하였다.

부상은 유גיע기 1습과 생황(5첩)반상기 4세트(4형제)와 여동생에게는 원암세트(그릇) 1식으로 모두 지방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제22호)가 제작한 것이다.

권정환 죽친은 상주시 종친회장을 역임하고 대종회 종무위원과 파종회 고문을, 아우 정택씨는 대종회 이사와 파종회 삼임부회장을 각각 수임하고 있다.



'상산의 빛' 효열상 표창 작자

권세현 중국 상해아태영화공사 초청배우, 미인대회 2관왕 영예

권세현 중국 상해아태영화공사 초청배우가 미인대회에서 진과 선을 차지하는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배우 권세현씨는 3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라마다서울호텔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 6회 인터내셔널 광고·패션 슈퍼모델 콘테스트에서 진(眞)을 수상했다. 배우 권세현씨는 이날 특별상으로 인기상도 함께 수상했다. 지난 2월 26일에 열린 '월드 슈퍼스타 코리아 모델 콘테스트 2021' 대회에서는 선(善)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예술대학 연기과를 졸업한 배우 권세현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흥보대사와 중국 푸단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등 재색을 겸비한 배우로, 중국이란 세계 최대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우로 성장하고 있는 유망주다. 배우 권세현씨의 아버지는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권기식 대종회 부회장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격세지감

권민수(琇秀, 향렬차 오찬樞梁, 35세)는 2014년 12월에 출생했다. 2021년 현재 만 6세 3개월 정도 됐으며 유치원 1년을 수료한 상태다. 옛날 같으면 늦은 젖을 먹고 마음껏 뛰놀 나이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해 맹자는 성선설(性善說)을 순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며 끝없는 논쟁을 벌여 왔으나 교육의 중요함만큼은 똑같이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은 출생하여 사망하기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교육을 위해 묘지·시장·학교 부근으로 3번이나 이사하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를 단행하며 맹자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교육 환경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불역열호(不亦說乎)" 즉 배우되 그때그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설교했다.

권민수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2022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유치원에서는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읽기와 말하기, 쓰기 가르치는데 89세인 내가 배우던 때의 중학생 수준을 훨씬 넘는 것 같다.



원어민 선생님과 권민수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교류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에 가깝고 한 손바닥 위에서 이뤄지는 듯하다.

한국의 교육 역시 요즘은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머지않아 고등학교도 본인의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앞으로 손자 민수가 훌륭하게 자라 권문은 물론 세계 인류문화사에 크게 이바지하고 족적을 남기는 빛나는 인재로 자라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할아버지 권태재(33세, 검교공파)